"나와 만나는 모든 인연 새롭게 대하는 자세를"

이장훈 신임 원불교 광주전남교구장

대각개교절 기념 은혜나눔 계획
'개교 정신' 지역사회 실현 노력
음악회·자선 바자회 등 매개로 시민들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

최근 원불교 광주전남교구에 부임한 백산 이장훈〈사진〉 교구장은 "'정신개벽과 바른 물질 선용으로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라'는 개교 정신을 지역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이 교구장은 최근 광주교당에서 인터뷰를 갖고 교구 운영방침과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 교구장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교구장으로 부임하게 돼 무엇보다 어깨가 무겁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가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큰 화두로 삼고 교구장 직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모든 여건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다 갈등과 대립이 심화돼 이에 대한 혁신과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며 "모든 것은 변하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적응하며 살 수 없는 세상이 돼 버렸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교구장은 소태산 대종사가 수신의 요법에서 첫 번째로 강조한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해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라는 조목을 언급했다. 다름 아닌 그것은 '새로운 생각과 신선한 태도'의 중요성과 연계된다.

이 교구장은 "교구 운영 또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나를 새롭게 하고 나와 만나는 모든 인연과 경계를 새롭게 대하며 새로운 시선과 안목으로' 볼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원불교를 잘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교구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도 밝혔다. 원불교가 열린 날을 기념하는 대각개교절(4월1일~5월5일)을 기념해 다양한 은혜나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 교구장은 "생명나눔 헌혈운동, 김치나 떡, 먹거리를 나누기도 하고 인근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음악회, 자선바자회 등을 통해 시민들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봉사하려 한다"고 밝혔다.

원불교는 일원상을 중심으로 진리의 내역,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설계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둔 종교다. 그리고 그 가치는 4대 강령으로 정리된다. 이에 대해 이 교구장은 "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원만한 행을 해나가고,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보은하는 데 있다. 아울러 배운 진리를 토대로 세상을 더 잘 살아가고 나아가 모두를 위하는 공익의 마음으로 살자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심화된 편가르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지난 대선을 계기로 드러난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옳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내가 옳은 만큼 상대가 옳다고 하는 것을 서로가 인정해 줄 때 하나를 향해 나아가는 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구장은 "저마다 나는 존귀한 존재고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며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지금 우리 각자는 우주의 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유일자(唯一者)임을 깨닫고 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신임 교구장은 원광대 원불교학과와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원광디지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광주전남교구사무국 사무국장, 한방건강TV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소남훈련원 원장, 학교법인 영산성지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자기복제 걱정에 처음엔 거절 다른 캐릭터로 새 모습 보여줄 것"

8일 첫방 새 금토드라마 '어게인 마이 라이프' 이준기

이준기

배우 이준기가 복수를 행하는 강렬한 캐릭터로 안방극장에 돌아온다. 드라마 '악의 꽃'(2020) 이후 2년 만이다.

이준기는 SBS 새 금토드라마 '어게인 마이 라이프'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통쾌함을 느낄 수 있는 드라마"라고 작품을 소개했다.

동명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어게인 마이 라이프'는 억울한 죽임을 당한 후 저승의 문턱에서 인생을 '리셋'할 기회를 잡은 열혈 검사의 절대 악(惡) 응징기다.

이준기는 억울하게 죽었다 돌아온 검사 김희우로 분해 악으로 가득한 정치인 조태섭(이경영 분)과 대립한다.

그는 "김희우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다가 죽임을 당하고, 인생 2회차 기회를 얻게 되는 인물"이라고 캐릭터를 소개했다.

처음 출연 제안을 받았을 때는 거절했다고 했다.

이준기는 출연 고사 이유에 대해 "작품이 주는 흥미는 있었는데, 기존처럼 제가 활약하고 뭔가를 이끌어가는 역할에 대한 '자기복제' 우려가 있었다"며 "다시 제안을 받으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과 고민했던 것들에서 만들어진 또 다른 캐릭터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역할은 (기존 캐릭터들과) 확실히 다른 것 같다"며 "그동안은 부모나 가족을 잃은 캐릭터로 오롯이 (개인적인) 복수를 했는데, '어게인 마이 라이프'에서는 시청자들과 함께 목표를 갖고 통쾌하고 짜릿하게 우리가 꿈꾸는 정의에 대한 답을 찾아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복수라기보다는 정의 실현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곱씹어가며, 악에 접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준기는 죽임을 당한 뒤 15년 전 과거로 돌아간다는 설정에 대해서는 "외모가 어려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컨디션 조절만 해오라고 했다"며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본다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다"고 웃었다.

김지은은 희우와 손잡는 재벌가 엘리트 김희아로, 정상훈은 희우의 법학과 선배이자 친구 이민수로 분한다. 김지은은 "희아는 상당한 재벌가 집안의 외동딸로 희우의 조력자"라며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이고, 서서히 (악을) 무너뜨려 나가는 '사이다' 전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정상훈은 "민수는 천재 캐릭터로 인생에 재미를 못 느끼다가 희우를 만난 뒤에야 재미를 느끼게 된다"며 "정의라고 해서 무겁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치 무협지처럼 희우가 (악의) 캐릭터를 부숴나갈 때 통쾌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출을 맡은 한철수 PD는 "누구나 이루지 못한 목표가 있을 텐데, 그 목표를 이룰 기회가 다음 생에 주어진다면 어떻게 이뤄가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라며 "김희우라는 인물을 따라가며 한 검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 목표가 이뤄질지를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8일 밤 10시 첫 방송.

/연합뉴스

이병주 문학세계 기리는 영호남 세미나

하동 이병주문학관 9일 개최

대하소설 '지리산'의 작가 나림 이병주(1921~1992·사진)의 문학세계를 기리는 '이병주문학 영호남학술세미나'가 오는 9일 하동 이병주문학관에서 열린다.

이병주 타계 30주기를 맞아 이병주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이번 학술세미나의 주제는 '이병주 문학 다시보기'. 김주성 작가 사회로 시작되는 학술세미나는 이기수 공동회장(전 고려대 총장) 개회사, 이달균 경남문협회장, 정관웅 전남문협회장, 탁인석 광주문협회장의 인사에 이어 김종회 문학평론가의 '이병주 소설의 한 면모-풍자와 해학'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이 펼쳐진다.

이어 소설가인 김용희 평택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덕은 전 전남대 교수, 최현주 순천대 교수, 이남정 시나리오 작가, 이승하 중앙대 교수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에는 김정희 시인, 심경숙 작가, 조평래 소설가, 임정연 안양대 교수 등의 토론이 펼쳐진다.

1921년 하동에서 태어난 이병주는 일본 메이지대 문예과에서 수학하고 중국 소주로 일본군 학병으로 끌려갔다.

광복 후 귀국해 진주농과대(현 경상대), 해인대(현 경남대) 교수를 거쳐 국제신보 주필로 활동했다. '소설·알렉산드리아'를 발표하며 문단에 나왔으며 '관부연락선', '산하' 등 작품을 남겼다.

한편 이병주기념사업회는 작가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자 2002년에 출범해 그동안 국제문학제, 학술세미나, 국제문학상 시상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펼쳐오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CC 라이브러리파크 수·토요일 연장 운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ACC)의 5개원 가운데 하나인 문화정보원에는 라이브러리파크가 있다. 이곳은 아시아 문화예술 관련 전문도서 6만6000여 권을 갖춘 도서관 외에도 자료 열람과 체험이 가능한 박물관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이곳을 방문한 이들이 도심 속 휴식을 취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도 있다.

ACC는 라이브러리파크 운영시간을 6일부터 매주 수·토요일 오후 8시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기존 개관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였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일)

이에 따라 낮 시간대에 라이브러리파크 이용이 용이하지 않았던 직장인을 비롯해 학생의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다.

한편 이용자들은 아시아 문화예술과 관련된 도서 및 자료 열람, 전시 및 실감 콘텐츠 체험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문의 1899-556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룹 엑소 수호, 2년만에 솔로 컴백

그룹 엑소의 리더 수호(본명 김준면·사진)가 자신만의 감성을 담은 솔로 음반으로 돌아왔다.

4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수호는 4일 오후 6시 각 음악 사이트를 통해 두 번째 미니음반 '그레이 수트'(Grey Suit)를 공개한다.

이번 음반은 2020년 3월 솔로로 첫발을 뗀 '자화상'(Self-Portrait) 이후 2년여 만의 신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 지난 2월 소집 해제된 뒤 첫 음악 활동이기도 하다.

오랜만에 내놓는 음반인 만큼 수호는 콘셉트 기획과 전곡 작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만의 음악 색깔을 드러내는 데 집중했다.

음반과 같은 제목의 타이틀곡 '그레이 수트'는 마치 멈춰버린 것처럼 공허한 회색빛 시간을 지나 다시 만난 누군가를 통해 점점 다채로워지는 감정을 빛과 색에 빗댄 노래다.

수호는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후렴구에 멜로디 라인이 서서히 올라가며 클라이맥스로 향하는 부분이 있는데, 회색 정장을 벗고 손·발 끝부터 다채로워지는 듯한 느낌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